

TV가 책을 만났을 때 - <TV, 책을 말하다>를 보고

주정순

I. 들어가며..

정보화산업이 국가적으로 장려되는 요즘, 최대의 화두는 “디지털” 일 것이다. 이런 디지털문화에 발맞춘 독서문화의 새로운 방법으로 손바닥만한 컴퓨터에 책의 내용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이 권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듯 편한 세상일지라도 우리 나라 사람들의 독서량의 실정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 이런 때에 어찌면 책을 멀리하는 시청자들을 만드는데 한 몫을 하던 TV에서 "책"을 소개하는 프로가 지난 5월 첫선을 보였다.

책을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닌 “말해주는” 프로그램인 <TV, 책을 말하다 (KBS1 목요일 오후 10시)>-이하 <책말>로 표기-가 시청자들의 안방에 책장 넘어가는 소리를 조용히 들려주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다른 채널에서 시청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드라마들이 가장 많이 방영되는 시간인 목요일 밤 10시에 더 이상 감성이 아닌 이성에 호소하려는 TV의 노력이 시작된다.

지금도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그것도 불과 5개월간 방송한 내용을 되돌아보면서 비평문을 작성한다는 것은 적잖은 부담이었다. 그러나 더 나은 <책말>을 원하기에 TV 덕분에 책이 과연 더욱 많은 독자들에게 읽힐 것인지 아니면 TV 때문에 책이 독자보다는 시청자를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될지, TV가 책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조심스럽게 알아본다.

II. 본론

1. TV 덕분에...

(1) 책이 영상미학으로 빠지다.

TV가 책을 말하는 구성은 이렇다.

『이번 주 테마 북』에서는 화제가 되는 책을 토론의 방법을 통해 소개하고, 『이

윤석의 “책으로 보는 세상”』 -이하 『책보세』 -에서는 요즘사람들이 그들의 일상에서 읽고 있는 책을 소개하며, 끝으로 『사진으로 보는 책 이야기』에서 아름다운 스틸사진을 보여주면 끝을 맺는다. 이 중에서 주요 코너인 『이번 주 테마 북』을 중심으로 글을 풀어 나가겠다.

웅장한 시그널 음악이 흐른 후 카메라는 드디어 책을 말하기 위해 준비된 TV 세트에 넘어간다. 무대세트 뒤편에는 커다랗게 디자인된 그날의 책의 표지가 보이고 무대 중앙에는 진행자를 중심으로 양쪽에 놓여진 의자에 다소 권위적인 듯 보이는 사람들-패널-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인다. 패널들의 토론으로만 프로그램을 이끌어 간다면 “책은 지루하다”라는 느낌을 TV에서조차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TV라는 장치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한다. 바로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소개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소도 스튜디오로 국한시키지 않고 야외에서 조용한 토론의 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풍부한 자료화면의 활용이다. 때로는 3D 컴퓨터 그래픽이나 애니메이션을 이용하고, 영화를 예로 들거나 오래된 필름속에서 자료를 구하기도 하며 책의 내용을 재현하기까지 한다(「은희경의 ‘마이너리그’」(4회)). 책을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내레이터의 설명과 함께 설명되는 책의 부분이 화면을 가득 메운다. 이때 단순하게나마 시청자는 “말해주는 TV”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TV를 통해 책을 봄으로써 시청자들이 느끼는 또 다른 대리만족은 평소에 대중매체에는 모습을 잘 보이지 않는 유명작가들을 TV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작가들은 현지에서의 인터뷰를 또 몇몇 국내 작가들은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서 자신들의 작품에 대한 토론에 직접 참여하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유명작가들의 모습을 직접 보여준다는 것만으로도 대중문화의 대표 격인 TV가 고급 문화와의 간격을 조금씩 좁혀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것들을 통해 <책말>을 선택해서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일말의 자부심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토론→자료화면(책의 모습을 보여주며 줄거리 소개)→대담→자료화면(작가들의 인터뷰 혹은 관련 자료)→다시 토론의 순서로 반복 진행되는 이 코너만 보더라도 <책말>은 단순히 책을 소개하는데 있어서 그들이 선택한 TV라는 수단의 이점인 영상적인 측면과 구성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2) 책의 이해는 물론이고 사회현상 이해에 도움을 준다.

음유(bardic) 매체¹⁾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 TV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더라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책말>의 제작진은 **시청자들이 좀 더 쉽게 책에 관해 이해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되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읽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한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언가를 이해시키는데 있어서 보여주는 것과 말하는 것을 동시에 하는 것만큼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 있을까. 즉 앞에서 언급했듯이 영상을 이용해서 보여주는 방법 또한 많은 도움을 주지만 무엇보다도 책에 관한 이해에 도움을 주는 것은 다루는 책의 주제와 관련된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들의 토론과 대담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거나 또는 대중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 사회변화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코드를 담고 있는 책을 대상으로 한다” 는 제작진의 기획의도가 “다를 책의 내용과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에 따라서 논쟁의 대담, 때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는 제작진의 방법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설명된다.** 패널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읽은 책의 내용을 전문적인 용어와 전문적인 사실을 예로 들어가면서 분석을 하고 의견을 나누며 때로는 격론의 장을 이끌기도 한다. 문학평론가들의 날카로운 지적은 **독자로** 하여금 책에 대해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시각을 잃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런 날카로운 지적들을 직접 맞은 작가들은 자신들이 책을 통해 하고자 했던 얘기를 스튜디오 오에서 말로써 전해주기도 한다. 이 뜨거운 토론은 때로는 책보다는 그런 책을 양성해 낸 사회현상에 관해 더 중점을 두기도 한다.

다른 어느 시사토론 프로그램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그들의 대담을 편안히 앉아서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은 보지 않은 독자들보다 더 많은 책에 관한 지식과 사회현상에 관한 지식을 TV를 통해서 충분히 얻어간다.**

(3) 독서를 충분히 권장한다.

매주 목요일 10시라는 시간은 평일의 늦은 시간이지만은 하루 업무를 마친 직장인들이나 늦은 하교를 한 학생들과 만나기는 가장 적절한 방송시간이다.

한 달에 적으면 4권의 책을 소개하는 <책말>에서 영광스럽게(?) 소개된 책은 월말에 정리되는 그 달의 베스트셀러를 찾아보면 다시 만날 수 있다. 일단 이 프로그램

1) 음유 매체 : **시청자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알리는데 있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해하고 다가오기 쉽도록 이야기 체의 형식을 빌린 TV의 설명방식을 빗댄 용어.**
『텔레비전 비평론』, 원용진, 한울 아카데미, 2000. p 21.

램에서 다루는 책들은 다양한 장르의 책 중에서도 화제가 되거나 방송당시의 사회적 이슈와 주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합된 책을 다루기 때문에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평소에 책에 관심이 없던 시청자들일지라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난 책을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해보거나 서점에서 찾아서 확인하고 싶은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하기에 이 프로그램이 우리 나라 출판업계에 주는 시너지효과는 아마 그들(책의 출판업자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2. TV 때문에...

(1) 외면되는 독자? 환영받는 시청자!

나는 이 글을 쓰면서 시청자와 독자라는 단어를 굵게 표기하고 있다. <책말> 보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쪽을 나름대로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일단 시청자 입장에서 <책말>은 재미있다. 즉 사회 현상과 관계된 책을 다룬다는 이유로 일차적으로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고, 그들이 진행방식으로 택한 다양한 설명 방식과 여러 자료화면의 활용 또한 “책은 재미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시청자들에게 TV를 보는 것만으로도 책을 읽은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 그러나 너무나도 친절한 그들의 설명에서 자칫 “읽는다”라는 행위를 소홀히 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책말>의 제작진은 그들의 시청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물론 프로그램의 기획단계에서 시청대상을 염두에 두는 것은 당연한 절차일 것이다. 그러나 <책말>은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억지스럽게 책을 말하고 있고, 시청자의 입장에서 가볍게 보고 책을 읽지 않고서도 책을 알게 되었다는 위험한 만족을 하게 한다. 그 만큼 프로그램 진행 방법의 전문성과 구성의 치밀함이 요구되는 것이다.

일단 외관상으로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인 듯하다. 현직 교수인 아마추어 진행자와 고학력의 소지자임이 공공연히 알려진 개그맨 출신의 보조진행자가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며 전문인들로 구성된 패널들 또한 <책말>이 단순히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책말>이 생각하는 독자라는 층은 전문인들로만 구성된 듯하다.

『이번 주 테마 북』을 다루기 위해 나온 패널들은 너무도 당연히 전문인들이다. 그리고 처음 방송을 시작했을 당시 지하철의 시민들이나 상인들의 일상과 함께 하는

책들을 소개했던 『책보세』에서조차 야외 촬영이 힘들었던지 “책 읽는 사람 누구
나가 주인공” 이라던 기획의도를 뒤집고 각계각층의 전문가, 소위 명사들이 감명 깊
게 읽은 책들을 여러 권 소개하는 방식으로 어느새 바뀌어버린 듯 하다.

물론 일반독자들이 아예 무시되었다고는 말할 수도 없다.

「중이 책의 마법, 해리포터 신드롬(3회)」에서는 해당 책의 열혈독자로 알려진
중학생 소녀가 패널로 참여했고, 초등학교 연극반 학생들이 스튜디오에서 책의 내용
을 구연하기 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방청석에 앉아 있는 학생들의 모습도 많
이 비추어 주었다. 또한 「<여름방학특집> ‘책은 재밌다-올 여름 청소년들에게
권하는 책’」(11회)에서는 서울대에 재학중이며 논술대회 대상수상자이자 독서광
으로 알려진 대학생이 출연했다.

그러나 이들 일반독자의 토론에의 참여도는 극히 미비하거나 그들의 방송참여가
당시에 다루는 책에 대한 일반인들의 호응도나 인기를 대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
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책말>은 같은 시간대의 타방송사들의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에 식
상한 시청자들에게는 공영 방송사가 새로운 소재를 신선한 방식으로 다룬다는 점에
서 흥미를 끌기 충분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진정 책을 읽고 사랑하는 일반독자들이
책을 말하는 프로그램에게 가진 욕이나 하는 기대심을 역시나 실망으로 되돌려준 프
로그램으로 다가왔다.

(2) 굳이 말 되어지는 책

앞서도 말했듯이 <책말>이 책을 말하기 위해서 선택한 주된 방법은 “테마 북”
을 읽은 여러 전문가들을 패널로 초대해서 책에 관해 전반적인 의견을 서로 교환하
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표 1]은 지금까지 나온 패널들을 직업별로 구분한 것이다. [표 1]에서 알 수 있
듯이 지금까지 출연한 패널들의 직업은 참으로 다양하다. 그리고 그들이 책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할 때 TV 화면 하단에 보여주는 그들의 약력을 소개하는 자막에서도
그들이 예사로운 패널만은 아니라는 점을 알게 한다.

[표 1] 1회(5월 3일)~17회(9월 13일)방송까지 출연한 패널의 구성도

직업	출연횟수	비고
문학평론가	7	
문학가	7	지은이의 자격으로 출연한 4명 작가 포함
방송인	5	연예인 포함
교수	8	
언론인	5	
전문직업인	5	건축가, 외환딜러, 경제학자, 사회학자, 기업가
의료계	2	
일반독자	2	
기타	3	목사, 명상음악가, 작사가

그러나 책을 이야기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직업의 전문인들로 구성된 패널의 출연이 어떤 효과를 더했을까. 이는 굳이 말되어지기 위해 전문적인 잣대로 분석되어지는 책만큼이나 분명하지 않다. 자칫 화려해 보이는 패널들의 직업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 진정한 책에 관한 전문인의 출연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의 표에서처럼 전체 방송횟수(17회 현재)에 비해서 문학분야의 전문인들이 출연한 횟수는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테마 북으로 선정한 책의 분야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문인들의 출연 또한 미비했다. 물론 방송 횟수가 늘어감에 따라 이런 점을 개선하는 듯한 모습이 차츰 비춰지고 있는 것은 다행으로 여겨진다.

패널들이 전문적인 용어와 지식을 바탕으로 책에 관해 토론을 시작할 때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토론이 진행될수록 과연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 자꾸 헛갈리는 자신을 발견한다. 이 시점에서 그들이 진행방식으로 선택한 토론의 내용과 방법을 되짚어볼 필요를 느낀다.

토론을 이끄는 패널들의 경력과 지식을 바탕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때로는 보충설명을 필요로 할만큼 전문적인 용어와 철학적인 분석태도가 가미되어 있다. 독자를 헛갈리게 하는 그들의 토론방법의 단점은 책을 분석하는 것인지 그 책이 화제가 되고 있는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것이다. 제작진들이 의도한 사회현상에서 책이 가진 사회적 코드를 찾고자 했던 기획은 패널들의 중구난방식의 토론 방법으로 무색해졌다.

패널들은 그들의 지식만큼이나 할 말이 많은 듯 하다.

진행자는 스스로 “선생님”이라 칭하는 패널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배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띄고, 길게 이어지는 그들의 이야기를 적절히 끊기 위해 애를 쓴 흔적은 어색한 편집의 모습에서 볼 수 있었다. 즉 토론에 의해 시청자들이 읽을 지 모를 흥미를 다시 붙잡기 위해 준비한 자료화면을 비율에 맞게 토론 중간에 배치함으로써 토론의 단절됨이 부각된 것이다.

한 전문 비평가가 <책말>에 관해 쓴 비평문에서 반드시 저자가 출연하도록 규정지어지지 않아서 신선하다는 평을 읽은 적이 있다. 물론 확실적이지 않은 그들의 제작 방법의 신선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자가 출연하지 않은 채 수박 겉 핥기 식으로 행해지는 분석을 보면서 독자들에게 얼마만큼의 호응을 얻어지는 미지수다.

저자가 출연했을 경우에도 명확하게 규정짓지 않은 토론진행방법으로 작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당대의 베스트 셀러 작가인 은희경이 자신의 신작인 ‘마이네리그’를 들고 직접 스튜디오에서 패널들과 만났던 4회 방송에서는 패널로 출연한 문학평론가가 그 시간의 테마 북에 관해 작가에게 심도 있는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작가의 전반적인 작품의 성격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작가 역시 성실한 답변보다는 질문을 되묻는 형식으로 일관해서 유명작가를 TV에서 직접 만난다는 기쁨으로 시청하던 독자들을 적잖이 실망시켰다.

책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굳이 토론이 선택되었다면 패널선정의 뚜렷한 기준과 함께 매시간 토론의 주제가 명확하게 정해져야만 독자와 시청자들로 하여금 충분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3) 베스트 셀러가 만들어진다면...

요즘 방송사의 제작진들의 가장 민감한 사안은 간접광고일 것이다. 드라마나 쇼프로를 통해 공공연히 이루어지던 간접광고가 여러 번 시정지시를 받아 아예 모자이크 처리나 스티커를 붙이는 등 그 노력이 실로 눈물겹다.

책도 역시 일차적으로는 광고를 해서 판매를 하는 상품이다.

우리나라 출판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공공연히 알려지고 있으나 쉽게 개선되지 않은 문제점이다. 책처럼 서점에 베스트셀러 부문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매주 분야별 순위가 집계되는 등 독자들이 책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그들 사이의 “화제” 만큼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드물 것이다.

[표 2]²⁾에서 방송 당시 순위³⁾와 그 후 순위의 변화⁴⁾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2) 참고 사이트 : www.kyobobook.co.kr

3) 방송일을 기준으로 최근의 분야내 10위권 진입 여부.

<책말>이 화제가 되는 책을 다루기 이전에 화제를 “조장” 한 혐의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스테디셀러의 책은 변화의 폭이 작지만 순위에 없던 책들이 급부상 했고, 출판일이 오래된 책 역시 10위권 도약이 눈부시다. 물론 제작진이 독자들이 책을 고르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했고 [표 2]와 같은 변화는 자신들의 그런 노력의 결과라고 한다면 필자는 할말이 없다.

[표 2] 테마 북의 베스트셀러 순위 변화

방송일	테마 북	작가	분야	출판일	방송당시 순위	방송 후 순위
5/3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	인문과학 (역사)	1995-2000	순위 없음	5월 7위
5/10	한국의 정체성, 한국의 주체성	책 세상 문고 우리시대	인문과학 (한국철학)	2000. 4.	순위 없음	5월 2위 5월 3위
5/17	해리포터 시리즈	조앤 K. 롤링	소설 (국외소설)	1999-2001	4월 1위	5월 1위 6월 2위
5/24	마이너리그	은희경	소설 (국내소설)	2001. 4.	5월 5위	6월 3위
5/31	가시고기 국화꽃 향기	조정인, 김하인	소설 (국내소설)	2000. 1. 2000. 6.	5월 6위 5월 7위	6월 4위 순위 없음
6/21	그리스 로마 신화	이윤기	인문과학 (역사)	2000. 6.	6월 1위	7월 1위
6/28	다이고로야, 고마워	에이지 준코	비소설 (수필)	2001. 4.	순위 없음	7월 5위
7/5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피에르 상소	비소설 (수필)	2000. 6.	6월 2위	7월 3위
7/12	거울 속의 천사	김춘수	비소설 (시)	2001. 4.	순위 없음	7월 6위
8/2	열 개의 인디언 인형	아가사 크리스티	소설 (국외소설)	1993	순위 없음	순위 없음
8/9	국화와 칼	루스베네딕트	사회과학 (일본문화)	1991. 2.	순위 없음	8월 2주 2위, 3주 3위, 4주 5위
8/30	소유의 종말	제러미 리프킨	사회과학 (경제경영)	2001. 5.	순위 없음	9월 1주 3위, 2주 4위, 3, 4주 6위
9/6	더불어 숲	신영복	비소설 (기행)	1998	순위 없음	9월 2주 13위

그러나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책말>은 “테마 북”이라는 명목으로 집중적으로 한 종류의 책을 다룬다는 것이다. 물론 변형된 『책보세』 코너에서 관련 주제의 여러 책을 소개하지만 3D를 이용한 설명은 집중이 분산되기도 하고 짧은 시간에 여러 개의 책이 소개되기에 방송이 끝난 후 인터넷으로 다시 확인하는 부지런한 독자가 아니라면 “테마 북” 만이 시청자들의 기억에 남게 된다. 그들 중 태반이 그 책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 결과는 또 다른

4) 방송 직후 다음달 분야별 월간 베스트셀러 순위. 단, 8월과 9월은 자료부족으로 주간순위 참고.

방법으로 베스트셀러를 만들게 된 것이다.

이런 자신의 영향력을 인정한다면 <책말>은 “테마 북” 선정에 무엇보다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뉴스의 신간소개코너를 되새김질하는 역할을 해서도 안될 뿐더러 케케묵은 책을 굳이 들추어내는 데에도 충분한 명분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왜 이 책이 논의 되어야하는지를 시청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납득시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

책이 비록 TV를 통한 광고는 없지만 신문에서 적잖은 광고를 볼 수 있고 출판사끼리의 경쟁이 베스트셀러작가 모시기로 이어지는 상거래가 통하는 출판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책말>이 TV 최초로 책을 분석하고 소개하는 프로로써 전형(典型)의 짐을 지기로 했다면 자본과 권력에 휘둘리는 TV의 병폐를 걱정하는 것이 필자의 기우이기를 바란다.

III. 끝내면서 - ...그래도 TV 라면...

5개월간의 길지 않은 방송을 보면서 <책말>에게서 확인한 것은 책을 말할 사람은 많지만 읽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독자를 모셔라.

제작진들이 신뢰성 있는 패널들을 모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들이 책을 읽은 패널들 중에서 선별되었는지, 토론을 위해서 책을 읽고 변론의 내용을 준비하는 재료로 이용한 패널들인지를 토론이라는 형식에 점점 식상해지는 독자들과 시청자들에게 명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

“그들만의 책” 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각계각층의 명사들이 아닌 진정한 독자를 모셔야 할 때가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구심점 없이 구태의연한 자세로 그들의 지식의 장을 펼친 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궁색하고 형식적인 멘트로써 토론의 결론을 독자들에게 짐 지우기보다는 자신들이 의도적으로 채우지 않은 여백을 독자들이 독서라는 방법으로 채우는 길로 인도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독자들이 그들의 생활 속에서 감동으로 다가온 책을 만나는 『책보세』 코너의 초기 기획의도를 다시 되살리고 제대로 정착시키는 것도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

TV가 책을 포장해서는 안 된다.

<책말>의 홈페이지 게시판은 독자들의 기대의 글로 가득하다. 책읽기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글이 있고 그들이 TV에서 만나고 싶어하는 수많은 책들이 있으며 독자의 입장에서 “테마 북”을 전문가 수준으로 평가한 글도 있다.

<책말>은 매 시간 방송을 끝내면서 다음 시간에 다룰 책을 미리 알려주는 따뜻한 배려가 있는 방송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여 시청률을 높이는 먹이 감이 아니라 미리 책을 읽고서 독서토론에 동참하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해 스튜디오 한 곳에 그들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음을 알리는 TV의 배려가 되기를 바란다.